

연중 제25주일

기도서 P. 442 C해

제1독서(아 모 8, 4-7)
 제2독서(디모전 2, 1-8)
 복음(루 까 16, 1-13)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집 한 상 감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강론



가슴이 쩡 하네요

현 유 복 신부

내일 모래면 추석, 추석이라 하면 어느 명절보다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노오랗게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 사이로 헤어졌던 가족들과 정담을 나누며 성묘를 가노라면 저절로 세상살이의 온갖 시름이 잊혀진다. 먼 옛날 할아버지의 푸짐한 너털웃음이 금방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런데 올해의 웃음은 작년과 또 다르게 들린다. 우선 농사를 망쳐서일까? 그동안 명들었던 마음의 후유증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답게, 아니 신앙인답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의 열등적인 죄책 때문일까?

뭔가 어둡고 답답하다. 정말로 가슴이 쩡- 계속 쩡- 쩡-하다.

툭나비퀴 같은 사회안에 던져진 우리들은 조상님들의 묘자리 하나 시원하게 별초하지 못하고 바빠 살아간다. 성묘가는 시간이 오히려 낭비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성묘는 배우는 식으로 새벽에 다녀와 종일토록 어울려 마시고 정신없이 떠돌아댄다. 삶의 목적은 즐기기 위한 것,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이유는 곧 나를 위해서만, 나의 것이 되었을 때에만 유용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하나라도 더 벌어서 누리고 즐긴다. 그렇게 살다가 조상님 묘앞에 얼굴들고 서 있자니 “가슴이 쩡- 할 수밖에...”

오늘 복음에서 약은 청지기는 약삭 빠르게 마지막 기회이고 순간일 망정 자기 직위를 미래의 삶을 위해 철저히 이용한다. 이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이다.

천년 만년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데 자신이 없다면, 뭔가 잘못 살아왔다고 반성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얼마남지 않은 시간과 힘을 다해 영생을 벌어야 할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는 평전 한달까지 철저히 계산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데에는 귀신같이 빠르지만, 영신 사정에 있어서는 더디기 한이 없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막마지에 이르러서야 눈물로 후회한다. 주님을 떠난 삶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세상에서 후회할 기회가 없었다면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뼈가 사무치도록 후회할 것이다. (마태 25, 48-51)

형제 여러분!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감실이나 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과 삶의 주위를 살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며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또 주님께서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조그마한 가슴은 고맙고 감사로운 마음으로 쩡- 할 것이다. (용양천주교회 주임신부)



부디

안녕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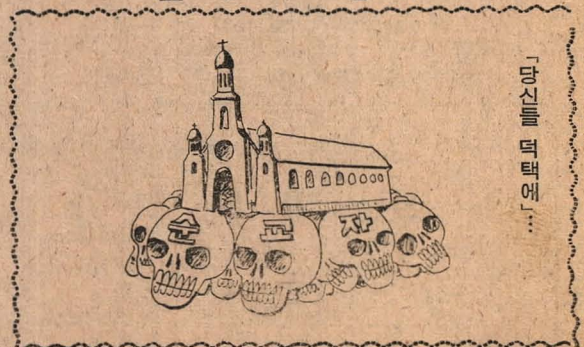
내일 모래가 한가윗날이다. 전통적으로, 추석에는 “함 팔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 등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茶禮)를 지내고, 벌초(伐草)·성묘(省墓) 등을 한다”. 다시 말해서 조상을 기억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때로 보아 추수(秋收)의 계절이라서 추수감사의 의미까지도 지닌 큰 명절이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은 물려받은 땅을 떠날줄 몰랐다. 생명이 이어지고, 기쁨과 한(恨)이 서려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삶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지역간의 거리감이 단축된 세상에 살기에 우리의 식구들은 서로 흩어져서 살아간다. 가족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밥상을 함께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에는 귀성(歸省)의 대열이 줄을 잇다 못해 소란을 피우기까지 한다.

만남은 즐거움이다. 30년을 갈라져 살던 이산(離散)가족의 만남을 상상해 보자. 그 기쁨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의 만남도, 헤어져 있던 연인과의 만남도 행복의 한 모습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한 단계 뛰어 오르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을 위해 하나 뿐인 목숨까지도 선선히 내놓는 것이다.

지난해 추석절에는 아픈 아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었다. 할아버님의 묘소도 멀고, 부모님이나 동생, 두 자식과도 떨어져 있어야 했다. 어딘가 구멍이 뻥하니 뚫린듯 싶었다. 밝고 둥근 달까지도 보기가 싫었다. 금년의 한가윗날, 가족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이웃들을 생각해 본다. 진리와 양심 때문에 이미 가족들의 곁을 떠나 있는 그들의 평안한 안식과 건강을 빈다.

숲 정이 산책



「당신을 선택해」...

묵상하며 기도하는 제 5차 순교자 현양대회

□ 9일 묵상

제 1일(9월 19일) 나는 어떻게 살아 왔는가? ...자기 반성하기.

제 2일(20일)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보속의 의미로 선행하기.

제 3일(21일)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세계 평화도 생각하며 사는가? ...세계평화를 위하여, 특히 공산주의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기.

제 4일(22일) 내 가정은 화목한가?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기.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기.

제 5일(23일)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기.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제 6일(24일) 나는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가? ...질서 지키기.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국민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하기.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는 국군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기.

제 7일(25일) 나는 교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가? ...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할 일을 다하는가 반성하기. 성직자와 수도자를 위해 기도하기. 교회의 지도자, 특히 교황님과 주교님들에게 성신의 올바른 감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기.

제 8일(26일) 나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감 묵상하기.

제 9일(27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의 크리스찬인지 반성하고, 그 사명감을 다짐하기.

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묵상하며,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뜻있는 복자성령, 뜻깊고 알찬 순교자 현양대회를 치루시다.

□ 현양대회(9월 28일 오전 11시)

제 1부...미사·시상식

제 2부...기쁨의 잔치

교우 가수인 계수남 형제가 특별 출연하여 성가(바벨탑)와 가별고 건전한 가요(주님께 바치는 노래-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를 선사합니다.

또한 전주시내 연예인 모임인 「그레고리오회」에서 경음악으로 성가와 건전가요, 민요 등을 들려 드립니다.

제 3부...단합대회와 성지순례

교구단위 단체(농민회·J.O.C·대학생회·의사회·약사회)와 사도회(본당 사도회 임원·공소회장)의 단합대회가 해성학교 강당에서 있고, 꾸르실로 특별모임도 있습니다. 빠짐없는 참석바랍니다.

그외의 일반 교우들은 복자성당 참배와 치명자산 순례로 이날을 더욱 뜻있게 지내십시오.

환영! 「장고」

나 종 윤(스테파노)

수 년전만 해도 취미가 무어나고 몰았을 때, 영화감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영화가 요즘은 T·V에 밀려 "사양질을 걷는 영화산업"이 되고 말았다.

그 옛날 취미를 몰았을 때 영화감상이라고 말 한 사람들—지금도 T·V감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영화 보는건 즐거운 취미라던 취미다.

돈 적게 들고 이국의 정취를 맛 볼 수 있고, 그 좋은 바다를 갈 수 있어 재미있다. T·V는 애당초 흥미가 없었다. 지금도 별로 T·V를 즐기지 않지만 그 좋은 영화도 T·V에 옮겨 놓으면 이내 싫증을 느끼고 만다. 역시 영상의 미는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것 같다.

세상에 멋진 것 중 하나가 혼자서 영화관에 가는 거라지만, 그것은 혼자서 영화관에 안가본 사람의 말이다. 혼자서 책을 들고 공원에 가듯, 혼자서 눈을 가지고 영화관에 가면 되는 거다.

어느 영화가 재미있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서부 영화가 재미 있다.

제미교포의 생활상을 「리포트」한 「코메리칸」의 낮과 밤」에서도 느끼지만,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으로 시작된 나라다. 따라서 미국으로 억만금을 가지고 이민을 간다 해도, 결국 미국에서의 정착은 빈손으로 시작해야 한다. 돈을 가지고 가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개척한 만큼 쓸 수 있고, 누구든 맘을 통한 터득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착되는 나라이다.

미국을 개척한 시민은 「유럽」에서 버림받고, 박해받고, 굶주린 사람들이 대서양의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는 옥수수투 배를 채우면서 「인디언」과 싸우며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것이다. 그렇게 개척한 미국이 어떻게 돈많은 이방인을 환영하겠는가?

이 개척시대를 그린 서부영화가 주는 교훈은 너무도 많다. 그래서 그 영화를 즐겨 본다.

때로는 보안관에게도 총을 쏘는 패륜이 있지만, 등에다 총을 겨누지 않는 깨끗한 「플레이」 그리고 지면 승복하는 그 당시의 윤리가 오늘의 미국 민주주의를 낳지 않았을까?

서부영화가 주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장고」 같은 정의의 사나이와 나와서 벌이는 사심(私心)없는 숙정작업이다. 내 딸이라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런것 따지지 않고 불량배를 소탕한다. 노약자와 부녀자를 보호하고 의로운 용사를 구해준다. 그 멋진 숙정작업의 「썸」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정말 보안관보다도 몇배 훌륭한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장고」같은 정의의 사나이와 나왔으면 좋겠다. 「엔니오·모리코네」의 선율과 함께 말이다.

(김계 천주교회)

□ 각종 케빈·카페트·응접셋트·실내장식 일철

삼 성 인 테 리 어

주 이 종 화(바오로)

전화 ① 1330

(팔달로변 전화국 북편 송의과 옆)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① 4451 율리안나

한국의 추사이망(追思已亡), 추석 성묘

—벌초 사례금은 지정된 사례함에

추석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조상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합동으로 봉헌한다. 또한 묘소를 찾아 성묘하기도 한다. 위령 합동미사 봉헌 잊지말자.

다음은, 전주의 교회 묘지 관리 위원회의 당부이다.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소홀하게만 다룰 수 없는 일이라 여겨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소리개재를 넘는 인파가 들끓는다. 거의가 교우들이다. 전주지방에 큰 영향도 준다. 시내버스가 정해진 시간으로 배차될 정도이니까.

이 날이면 객지에서 살던 사람들도 오랜만에 찾아와, 바로 소리개재 넘어 조상님네들 앞에서 서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모두가 포근한 느낌 속에 인심까지도 후해진다. 좋은 일이다.

벌초를 걱정하며 왔는데, 잘 다듬어진 조상의 묘는 한결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인심이 더욱 후해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벌초는 해마다 묘지 관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해낸다. 연인원 100여명이 넘는 인부를 사서, 여러분들의 바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묘소를 다듬는 것이다. 금년만해도 인부 한 사람당에 5,500원의 일당을 주고 보름전부터 풀을 깎는 것이다.

그런데, 인심이 후하다보니 인부들에게 직접 사례금을 준다. 후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 가족의 묘를 더 잘 지켜주는줄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묘지관리기가 어렵게 된다. 묘지관리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위원회의 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수고에 정표를 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먼저, 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벌초 사례함”에 정성을 표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의 고마운 정성이 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다. 벌초 사례금은 먼저 지정된 사례함에 넣어 주시기를 다시 당부한다.

—전주교 교회 묘지 관리 위원회

J. O. C 연수회(13일~14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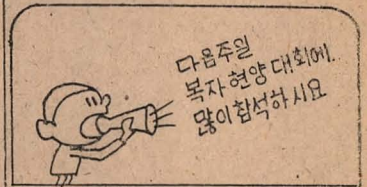
교구 평협 임시 총회(14일) 열려

J. O. C(가톨릭 노동청년회)가 지난 13일 오후부터 14일 오후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열렸다. 40여명의 회원은 전국지도를 맡은 전미카엘 신부와 교구지도 김영신 신부의 지도로 진지한 연수회를 마쳤다.

한편 교구 평협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현안문제들을 놓고 임시총회를 가졌다. 38개 본당중 26개 본당, 8개 교구단위 단체 가운데 6개 단체의 대표들은 「순교자 현양대회」·「평협운동의 활성화」·「농촌과 도시 본당간의 형제애 증진 방안」등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J. O. C와 교구 평협은 영국 성 토마스 모어를 그린 “사제절의 사나이”라는 영화를 함께 감상하고 폐회미사도 함께 봉헌했다. 교구 평협 김봉희 지도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어려운 이 시기에 십자가의 참 뜻을 항상 묵상하며 살자”고 말했다.

인심(372) 김병호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② 4448 · ③ 2176

茶房 門을

열었습니다.

전주 전신전화국 앞 옛자리 지하

☎ ② 5013 · 5011

임 금 님

◆ 오리표 · 백곰표 생크
보정기 가스기구 일체

동남 종합 싱크주방

동남 의료 과학 상사

김 낙 균(요셉)

전화 3-6900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상당 정문옆)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님)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협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 직원 채용 공고 □

1. 모집인원 : 남자 ○명
 2. 응모자격 : 고졸이상의 실력을 가진 자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30세 미만의 남자(단, 부기 3급 주산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3.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건강진단서, 소명환파사진 1매, 부기·주산자격증사본 각 1통씩
 4. 접수기간 : 1980. 9. 22. 09:00 ~ 1980. 9. 27. 15:00 까지
 5. 접수처 : 전주시 경원동 1가 50번지 본조합 총무과(전화②0810)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일자 : 1980. 9. 29. 14:00
면접장소 : 본조합사무실
 7. 합격자발표 : 1980. 9. 30. 개별통지
- 전주임원신용협동조합**
전주시 경원동 1가 50번지 ②0810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5 차 순교자 현양대회...9월 28일 오전 11시, 숭정이가(해성학교 교정)에서
2. 성가 및 응변대회 결선...21일(일), 오전 10시(응변), 오후 2시(성가), 가톨릭 센터에서
3. 제 3회 전국 가톨릭 중·고등학생 응변대회...10월 12일, 서울 동성고교에서
 - ① 주제...“하느님과 나”(중등부), “하느님 백성의 일치”(고등부)
 - ② 참가 희망자는 현양대회(9월 28일)날까지 교구 평협으로 원고와 더불어 접수하시기 바람
 - ③ 원고 길이...200자 원고지 10매 이내(7분 이내)
4.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복지성원 행사안내...① 치명자산 참배-9월중 매주 일요일 오전 6시까지 치명자산 도착 ② 9일 기도회-9월 20일~28일 매일 오후 5시까지 치명자산 도착

※ 단 28일은 순교자 현양대회 참여로 대체함.
5. 제 6 지구 전선 체육대회...10월 3일(금), 전안성당에서
 - 전국 울뜨레아 합석 안내...10월 9일 오전 9시, 참가비-4천원
 - 쿠르칠리스타 회원은 회비 4천원을 준비 지구별로 행동(각 지구에서는 참석인원 교구 사무국에 통보)
 - 유종환(마태오) 신부 영명축일(9월 21일) 축하연 없음이다
 - 숭정이가 대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각 분당에서는 속히 납부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수임 사도	신부 보좌	신부 박사도	문정 박회장	정성림	현필구
-------	-------	--------	--------	-----	-----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강당
 2. 애령회: 26일(금) 어머니미사 후
 3. 어린이 영세식: 26일(금) 어머니미사
 4. 추석합동 위령미사: 오전 6시, 오후 7시 30분 교회포지-10시(주교님 집전) 위령미사 예물은 21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치명자산참배: 27일, 오후 2시까지 어린이들은 성당에 모일 것
 5. 특별행사: 24일(수) 오후 8시 단막극-소년복자 유대철 탈춤-복자 김대건 신부 부극 및 이 누갈다 육종 서간
 7. 28일 일요일은 순교자 현양대회 관계로 10시 30분 공식미사 없습니다
- 지난주 불헌금: 500,346원

6. 제 5 차 순교자 현양대회: 28일 해성학교에서 11시 분당미사-아침 5시30분, 저녁 8시
- 지난주 불헌금: 244,07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수임 사도	신부 박사도	문정 김회장	정성림	현필구
-------	--------	--------	-----	-----

1. 추석합동 위령미사: 23일(화) 새벽 6시 분당미사 10시 교회포지에서 미사(주교님 집전)
 2.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3. 순교자 현양대회: 28일(다음주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4. 다음주일 미사시간: 분당미사는 새벽 6시 한대뿐...
- 지난주 불헌금: 144,095원 교무금: 53,000원

(숭정이가)

전화 ③7366

수임 사도	신부 박사도	문정 이대권	정성림	현필구
-------	--------	--------	-----	-----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추석 합동미사 예물: 22일까지 분당 사무실에 접수
 3. 추석미사 안내: 23일 오전 10시, 교회포지-주교님 집전, 분당-오후 7시30분
 4. 순교자 현양대회: 9월 28일, 해성학교 교정에서
 5. 청년회: 매주(수) 오후 8시
 6. 유치원 소풍: 9월 30일
 7. 신축기금 헌금: 장바오로(10만원)
- ☆ 축! 이전: 숭정이가 신용협동조합 사무실
 숭정이가 성당 신축건물 내(전화 ③ 7366)
- 지난주 불헌금: 196,070원

(노충동)

전화 ③7032

수임 사도	신부 박사도	문정 김중근	정성림	현필구
-------	--------	--------	-----	-----

1. 추석합동 위령미사: 23일(화) 새벽 5시, 오후 7시 30분 각 가정의 조상들을 위해 정성껏 미사예물 봉헌바람
 2. 성서 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3. 인후아파트 특전미사: 매주(토) 저녁 8시 삼공목욕탕 2층(③ 3733)에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잠언, 전도서, 아가
 5.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합니다
 6. 다음주는 공식미사 없습니다: 28일 순교자 현양대회 관계로 당일 분당에 오전 10시미사가 없었습니다 (해성학교에서 합동미사 있음)
 7.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불헌금: 212,235원

(덕진)

전화 ③2182

수임 사도	신부 박사도	문정 서정오	정성림	현필구
-------	--------	--------	-----	-----

1. 오늘은 애령주일: 먼저가신 선영과 조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애령회 회합: 미사후
 3. 레지오 마리에에 관심을...남자 레지오에 협조를...
 4. 순교자 현양대회: 다음주, 해성학교 교정에서
 5. 주일학교 자모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어머니들 꼭 참석해 주세요
 6. 이사오신 분: 강기래(베드로), 김병승 가족
 7. 진복회 월례회: 다음주
- 지난주 불헌금: 249,530원

(복자)

전화 ③5238

수임 사도	신부 박사도	문정 김태호	정성림	현필구
-------	--------	--------	-----	-----

1. 사도회 긴급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2. 천주교 200주년 특별헌금: 21일(오늘 미사에)
3. 보좌신부님 영명축일: 29일 많은 기도와 협조바랍니다
4. 추석합동 위령미사: 23일 저녁 8시 ※ 공동포지에서는 10시
5. 영세식: 27일 저녁 7시 30분 (대부모와 미리 오셔서 준비 바람)

(전동)

전화 ③3222

수임 사도	신부 박사도	문정 김기석	정성림	현필구
-------	--------	--------	-----	-----

1.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2. 꼬미씨울: 오후 2시
 3. 추석 합동 미사예물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4. 수녀원 추진위원결성: 위원장-장준수(도민교) 부위원장-김용욱(야고버)·이영태(요셉)·김인찬(분도)·이귀남(누시아)·이길용(엘리사벳)·문혜준(유스티나)
 5. 영세식: 10시미사 중에
 6. 순교자 현양대회: 28일-점심 지참, (분당미사 없음) 장소-해성학교, 미사시간-오전 11시 ※ 현양대회 합동 미사에 참여 바람
 7. 추석 합동미사: 성당 공동포지 10시-주교님 집전
- 지난주 불헌금: 382,215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수임 사도	신부 박사도	문정 김영일	정성림	현필구
-------	--------	--------	-----	-----

1. 추석합동 위령미사: 23일 7시 30분
 2. 사도회 월례회: 10월 5일
 3. 부녀회: 10월 첫주
 4. 유아세례: 10월 5일 오후 3시 미사후
 5. 성모 기사회: 10월 4일 오후 2시
 6. 다음주 저녁미사: 분당에서
 7. 수녀원 신축성금 신입자: 임마리아·이교성(각 1백만원), 성모회(50만원), 황희상·이스떼파노(각30만원), 분당신부(15만원), 채수현(20만원), 부녀회·송베로니카·김발렌티나·최사베리오·최성진·김용수·장용근·윤영성(각 10만원), 김숙·김영웅·윤영욱(각 2만원), 임명(1만원), 교안나(5천원)
- 지난주 불헌금: 103,700원 어린이헌금: 1,860원 교무금: 49,900원